



동메달 목에 건 태극전사들 11일 오후(현지시간)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태극전사들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거친 몸싸움·강한 압박...작전의 승리



초반부터 터프한 플레이... 주도권 잡아

승리 향한 태극전사들 의지 일본 압도

상대를 압도하는 거친 태극과 최전방 공격진부터 이어진 강한 압박. 일본의 예봉을 꺾기 위해 홍명보 감독이 구상한 '작전의 승리'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2-0으로 승리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태극전사들은 90분 내내 상대 공격수의 발을 묶는 압박 수비와 강한 태클로 일본의 공격 예봉을 무디게 만들었다.

대표팀은 이날 일본을 상대로 17개의 반칙을 범하고 옐로카드도 4개나 받았다. 기성용(셀틱)은 전반 23분 상대의 역습을 강한 태클로 막아내 첫 옐로카드를 받았고, 전반 34분에는 '주장'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도 깊은 백태클로 옐로카드를 추가했다. 특히 구자철의 반칙으로 한국과 일본 선수들은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는 등 태극전사들은 조별리그와 8강, 4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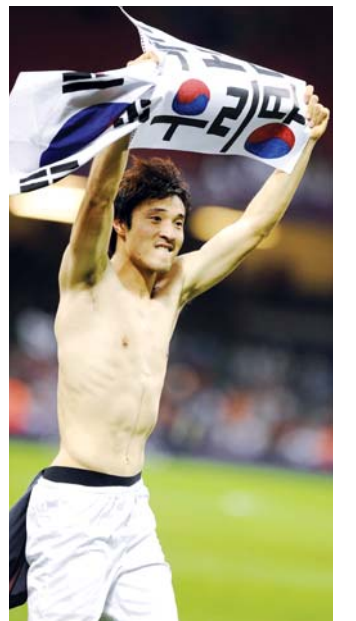
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터프함'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선수들이 초반부터 강한 몸싸움을 펼친 것은 홍명보 감독의 작전이었다. 미드필더의 정교한 패스를 앞세워 골을 만들어가는 일본의 경기 운영 방식을 막고자 홍 감독은 패스가 이어지기 전에 미리 반칙으로 끊어버리는 전술을 사용했다. 더불어 최전방부터 포백까지 간격을 좁혀 일본이 패스를 쉽게 하지 못

하도록 강한 압박에 나선 것도 승리의 요인이 됐다. 박문성 SBS 해설위원은 "초반부터 거칠게 상대를 다루고 최전방 공격수부터 강하게 압박을 한 전술의 승리였다"며 "볼을 예쁘게 차는 일본 선수들이 한국의 거친 플레이에 위축돼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승리를 향한 태극전사들의 의지가 일본을 압도한 것도 이날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메달 박탈?

IOC, 진상조사... 축구협 "사전 준비 아닌 우발적"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 본과의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 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미드필더 박종우(부산)에 대해 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한체육회(KOC)는 11일 오후(현지시간) "IOC로부터 축구대표팀의 박종우를 동메달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런 세리머니가 나온 배경을 조사해서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종우가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 대 일본 3.4위전에서 승리한 뒤 관중석에서 전달받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다.

박종우는 전남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3-4위전이 끝난 뒤 관중석에서 전달받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올림픽 무대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IOC는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가 찍힌 사진을 보고 대한체육회에 박종우의 메달 수여식 참석 불가를 통보하고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관중석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가 많이 보였다"며 "박종우가 관중석에서 종이를 받아 들고 그라운드를 뛰는 모습을 보고 급히 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진이 찍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수들이 동메달을 확보

하고 나서 흥분한 나머지 관중이 건네준 종이를 들고 뛴 것 같다"며 "사전에 준비한 세리머니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IOC의 조치에 따라 박종우는 이날 멕시코와 브라질의 결승전이 끝난 직후 이어진 메달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시상대에는 박종우를 제외한 17명의 선수만 나서 동메달을 받았다.

홍명보호 "감사...감사...한국축구 사랑해주세요"

인천공항 귀국 해단식

1000여 명의 팬들 앞에 선 홍명보 감독과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말끝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하다'는 말이 떨어지 나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축구를 더 사랑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을 차지하고 12일 한국에 돌아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홍명보호는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대표팀 해단식을 했다. 홍명보 감독은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축구팬과 국민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팀의 만행 박주영(아스널)은 "지난 한 달 동안 대표팀과 함께 고교 해준 국민과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을 때는 동료 선수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떠올랐다"며 "(일본전 승리로)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장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은 "메달을 따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밤잠을 설치며 응원해준 국민 덕분에 힘낼 때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 찾아와준 팬들께 고맙다"고 전했다. 마이크를 잡고 일어나는 것만으로 인천공항이 떠나갈 듯한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낸 기성용은 "선수, 코치뿐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준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전했다. 박주영, 구자철, 기성용은 각자 발언을 마치면서 한국 축구를 더 사랑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빛日만평

- 김중두



한국민들 마음을 알고나...

<p>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p> <p>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p> <p>여행문의 1577-6511</p>		<p>이달의 우수대리점</p> <p>월드점 062) 523-4300</p>		<p>대리점을 모집합니다.</p> <p>문의 전화 062) 228-6644</p>	
<p>무안출발 북경</p> <p>롯데호텔 스위트룸!!</p> <p>북경/만리장성 4일/5일</p> <p>529,000원부터</p>		<p>3대 옵션 포함*</p> <p>고급객 북경/만리장성 4일</p> <p>749,000원부터</p>		<p>무안출발 상해</p> <p>3대(大)옵션 포함!!</p> <p>상해/항주/동리 4일</p> <p>389,000원부터</p>	
<p>유럽</p> <p>서유럽 6국 노퍽/유프라우 6/7 12일</p> <p>3,690,000원부터</p>		<p>중국</p> <p>장사 장가계 5일/6일</p> <p>599,000원부터</p>		<p>일본</p> <p>아시아나 항공 히로시마 중편 특선</p> <p>아미자키 히로시마 후쿠오카 3일</p> <p>549,000원부터</p>	
<p>동남아</p> <p>말레이시아의 정주 코라카니파루</p> <p>599,000원부터</p>		<p>미국/캐나다</p> <p>하와이 5일/6일</p> <p>999,000원부터</p>		<p>크루즈</p> <p>클럽하노니 알래스카 크루즈 9일/10일</p> <p>549,000원부터</p>	
<p>스페인 포르투갈</p> <p>총액 3,190,000원부터</p>		<p>일본</p> <p>동양의 하와이 오키나와 비앙스투어 4일</p> <p>899,000원부터</p>		<p>대양주 광/사이판</p> <p>NEW! 오라키아 10대 특선/20대 특선/30대 특선/40대 특선/50대 특선/60대 특선/70대 특선/80대 특선/90대 특선/100대 특선</p> <p>2,990,000원부터</p>	

광주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매월점, 광안점, 농성점, 전남점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안점